



빅토리아 한인천주교회

제14권 733호

VICTORIA KOREAN CATHOLIC CHURCH 2023년 12월 25일 (나해)

4040 Nelthorpe St. Victoria BC V8X 2A1

2024년 <사목목표>-자비의 해

[주님, 당신은 저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십니다. (시편 86:15)]

주일 미사 : 빅토리아: 일요일 3PM
나나이모: 토요일 4PM
평일 미사 : 수요일 8:00PM (빅-성당)
목요일 10:30AM (빅-성당)
교회 성사 : 미사 30분전

주임신부 : 유영진 로베르토 ☎ 778-966-3689
카카오톡 ID-ryu0758
사목회장 : 변영호 리처드 ☎ 250-893-3355
성당 카페주소 : <http://cafe.daum.net/hsaem>
주소 : 6234 Spartan Rd, Nanaimo, BC V9T 2N9

2023년 12월 25일 [(백)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사]

“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,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!” 하느님의 아드님
께서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. 말씀이 사람이 되었습니다.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.
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이가 되었습니다. 이 놀라운 강생의 신비로 우리에게 지극한 사
랑을 보여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오늘을 경축합니다.

<전례 순서>

✧ **입당송:**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,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.
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,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.

✧ **입당 성가 103 (오늘 아기 예수) ✧ 대영광송 326**

✧ **제1독서**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 52,7-10

✧ 화답송

- ◎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.
- 주님께 노래하여라, 새로운 노래.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.
그분의 오른손이,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. ◎
-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.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.
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. ◎
-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.
주님께 환성 올려라, 온 세상아.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, 찬미 노래 불러라. ◎
-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.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.
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,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. ◎

✧ **제2독서**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. 1,1-6

✧ 복음 환호송

- ◎ 알렐루야.
-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. 민족들아,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.
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. ◎ 알렐루야.

✧ **복음**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,1-18

✧ **봉헌 성가 211 (주여 나의 몸과 맘)**

✧ **영성체송 :**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,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.

✧ **성체성가 166 (생명의 양식)**

✧ **파견성가 102 (어서 가 경배하세)**

※ 오늘의 묵상

“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, 주 그리스도이시다”(루카 2,11). ‘구원자’이시고 ‘주님’이시며 ‘그리스도’이신 분께서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. 주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오늘 복음 말씀은 위의 호칭들보다 심오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시하며, 성자 강생의 신비를 한층 더 깊이 묵상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.

“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.” 여기서 말하는 ‘한처음’은 세상이 창조되던 ‘한처음’(창세 1,1)을 훨씬 앞서는 시기, 곧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‘한처음’입니다. 말씀이신 분께서는 그러한 ‘한처음’의 순간에 생겨나신 것이 아니라, 그 순간에도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으로 드러납니다. 말씀은 하느님과 늘 함께 계셨으며, 그분도 하느님이셨습니다. 곧 아버지 하느님과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이신 성자 하느님이셨습니다. 성부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시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나게 되었습니다. 그분께서는 생명을 지니신 분으로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셨습니다. 곧 말씀은 당신을 통하여 창조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모든 은총의 원천이셨던 것입니다.

말씀이시고 하느님이시며 빛으로 정의되시는 분께서 오늘 이 세상에 몸소 내려오셨습니다. “모든 사람을 비추는, 참빛이 세상에 왔다.” 그런데 그분께서는 당신의 본모습대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, 사람이 되시어, 곧 인간의 육을 취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. “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.” 사람이 되신 당신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,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하셨습니다.

구유에 누워 곤히 잠든 이 아기는 이처럼 놀라운 신비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. 초라한 마구간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는 영광이지만, 우리의 영적인 눈은 이미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. “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.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,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, 영광을 보았다.”
(정천 사도 요한 신부)

**주님 성탄 대축일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
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.**

		제1독서	제2독서	복 사	반 주
성탄 낮 미사 (25일)	나나이모	오재문 제노비오	이효열 오티리아	박지성, 고예은	이유빈 스텔라
성 가정 축일 미사 (30일)	나나이모	김은정 체사리아	김여순 켄마	고귀한, 지 민	이유빈 스텔라
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(31일)	빅토리아	김영희 마리아	서승희 안젤라	이연재, 김찬욱	Serena Park